## 데스크 시각

# ‘메이드 인 ACC’를 보고 싶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박 진 현
문화·예향담당 국장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고속열차(ICE)를 타고 1시간 30분쯤 달리자 칼스루헤(Karlsruhe) 중앙역에 닿았다.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곳은 뷔르템베르크주에 속하는 인구 30만 명의 중소도시다. 베를린, 뮌헨 등 대도시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명소가 거의 없어 관광객들이 건너 뛰기 때문이다. 독일은 매년 전 세계에서 3700여 만 명이 찾는 관광대국이지만 칼스루헤는 특수를 얻지 못했다.

### 칼스루헤의 미래 바꾼 ZKM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1989년 ‘ZKM(Zentrum fur Kunst und Medien·예술과 미디어센터)’이 개관하면서부터다.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센터와 함께 세계 최고의 미디어아트센터로 부상하며 매년 평균 전 세계에서 28만여 명이 다녀가는 문화도시로 변신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슐로스리히트슈피레’(Schlosslichtspiele·궁전라이트쇼)가 열리는 가을 시즌에는 칼스루헤행 기차가 매진이 될 정도다.

지난달 초, 기자가 찾은 ZKM은 독특한 조합의 외관이 시선을 사로 잡았다. 5층 규모의 고풍스런 건물과 전면이 유리로 마감된 모던한 건물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글로벌 미디어 축제의 본고장인 만큼 최첨단의 고층 건물을 떠올린 내 예상과 달랐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또 한번의 반전이 일어났다.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날 것 그대로의 철제 구조물이 ‘힙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1층 로비를 중심으로 양쪽에 자리잡은 대형 전시실에는 마침 세계적인 퀄리티를 자랑하는 ZKM 소장품 상설전 ‘끝나지 않은 이야기’(The Story That Never Ends)가 열리고 있었다. 뉴욕의 모마(MoMA), 런던의 테이트모던 등 유명 미술관의 현대미술 섹션에서나 만날 수 있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미디어아트 대표작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사실, 20~21세기의 미디어아트 1만2000점을 소장하고 있는 ZKM은 전 세계의 미술관들이 앞다투어 러브콜을 보낼 만큼 독보적이다. 개관 30주년인 지난 2019년에는 독일 최초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선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독일인들의 자부심을 높였다.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결과다.

최근 취재차 방문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ZKM을 소환시켰다.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9월 26일~11월 8일)의 개막 공연인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Il Trovatore)가 열린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국내외에서 몰려든 관객들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제작극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2003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기획·제작한 전막 오페라는 완성도 높은 무대로 국내 공연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6편의 오페라 축제 라인업에서 눈길을 끄는 건 ‘미인’이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창·제작 콘체르탄테(협주곡)인 미인은 지난해 문을 연 대구 간송미술관의 개관 특별전에서 화제를 모은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다. 오페라하우스측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그림속 인물들을 무대예술로 되살려내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향후 쇼케이스 등을 거쳐 볼륨을 키운 뒤 해외팬들을 사로잡는 K-오페라의 산실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이미 올 초 에스토니아의 ‘사아레마 오페라축제’ 등에 참가해 제작 역량을 인정 받아서인지 K-뮤지컬의 신화를 쓴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바통을 대구에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 ‘K-오페라’ 꿈꾸는 대구

기분 탓일까. 개관 10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둘러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왠지 다르게 보였다. 지난 2015년 11월 광주의 장밋빛 미래를 내걸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ACC의 10년 여정이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다. 초창기 랜드마크 논란에서부터 대표 콘텐츠, 창·제작 기능, 지역문화예술과의 협업 등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강산이 변한 만큼 대중성을 살린 콘텐츠와 10회째를 맞은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지역협력회의 발족 등 ACC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시적 성과도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그래서인지 그저 그런 소도시를 세계적인 미디어 발신지로 키운 ZKM, K-오페라의 메카를 꿈꾸는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새삼 복합문화기관의 역할과 의미를 되돌아 보게 한다.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높이는 플랫폼에서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브랜드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ACC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건 그 때문이다. 이젠 그동안 쌓은 역량을 모아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할 ‘온리원(Only one) 콘텐츠’를 고민해야 할 때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진리는 근래 한류열풍에서 실감하고 있지 않은가. 전 세계인을 사로잡을 ‘메이드 인 ACC’의 탄생을 고대한다.

## 社說

# 무등산 화장실이 던진 철학 담은 공공건축물

국립공원 무등산에 새로 지은 화장실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토끼등에 세운 화장실이 미관과 바람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도 최근 개장한 장불재 화장실마저 공공건축물에 대한 고민을 전혀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끼등 화장실 개관 당시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공단 측은 장불재 화장실을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완공해 최근 개방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디자인에 대한 개선 요구에도 나무 몇 그루 심고 페인트 색상만 바꿔 그대로 완공한 것을 보면 공단 측의 무신경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한다. 공개 입찰 대신 평소 수의계약을 도맡았던 업체에 그대로 맡긴 것에서도 고민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장불재 화장실은 서석대, 입석대와 마주한 곳에 자리한 유일한 공공건축물이다. 그런데도 자리의 상징성은 커녕 화장실이라는 기능성만 강조해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두고두고 눈살을 찌푸리게 됐다. 군립공원인 경남 합천군 황매산 화장실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휴게실을 겸한 황매산 화장실은 건축가의 자문을 받고 지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친환경적 디자인으로 2021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았다. ‘철새와 억새 사이’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데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 인증샷 명소가 됐다고 한다.

무등산 화장실 논란을 계기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광주시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공건축물에 별다른 철학이 담겨 있지 않고 이번 논란에도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공공건축물은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얼굴이나 마찬가지다.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더라도 철학을 담아야 한다. 광주시에는 지난해부터 총괄건축가제도가 사라졌는데 요즘 트렌드와 역행하는 처사다. 총괄건축가제도를 부활해 공공건축에 대한 틀을 다시 짜길 바란다.

# 광주·전남 전산망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전산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순간의 화재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얼마나 큰지 눈으로 확인했다. 우체국 우편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추석 대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망쳤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들로 북적였다.

정부 전산망 복구 나흘째가 됐지만 전체 복구율은 10%대에 머물고 있고 국민신문고 등 나머지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최소 4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전산망 관리에도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전남도는 화재가 발생한 대전 정부 전산망과 운영 체계가 비슷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배터리와 UPS(긴급전원공급장치)가 같은 장소에 있어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제 소지가 많다.

그나마 광주시 전산망은 데이터센터와 UPS, 배터리실이 분리돼 있고 배터리도 대전과 달리 리튬이온이 아닌 황산 소재로 화재 위험성이 낮다. 민간기업인 NHN 클라우드에 시 홈페이지 등 36개 시스템의 백업을 위탁하고 있는 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전산망 이중시스템은 구축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와 상호 백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산망 마비 사태는 별도의 장소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산망 이중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2년 전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 후에도 외양간을 안 고친 결과를 똑똑히 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주시와 전남도도 자체 전산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 은펜칼럼

# 대미 관세협상의 승부수, ‘MASGA’의 성패

한 국 환
경영학 박사

올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제안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핵심 카드로 부상했다. 침체된 조선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 세계적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총 3500억 달러(약 4900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는 관세 인하(25%→15%)와 직결될 수 있어 향후 한·미 통상 외교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MASGA’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패러디한 것으로 이번 협상에서 ‘비장의 카드’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미 조선업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 기술(LNG, 암모니아·메탄올),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 스마트십·디지털 기술(AI·IoT 기반), 품질·안전성 관리 능력 등에서 국제적 인증을 받으며 시장을 선도해 왔다. 또한 납기 준수, 사후 서비스, ESG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최상의 ‘협력 파트너’로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재건을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제안에 적극 호응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MASGA’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한·미 조선업 협력의 전략적 필요성을 상징한다. 하지만 걸림돌도 많다. 양국의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농산물 시장 개방, 인력·비자 문제 등에서 이해가 엇갈린다. 올해 한국이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투자 중 1500억 달러가 미국 조선업에, 2000억 달러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분야에 투입된다. 그러나 농축산물 개방, 에너지 구매,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은 여전히 협상 중이지만, 투자 규모 자체도 우리 외환보유액(8월 말 4162억 달러)의 84%에 달해 외환에 너무 큰 부담이다.

즉 3500억 달러 투자가 일시에 이뤄지면 외환위기(IMF 사태와 유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를 ‘현금 투자’로 선불로 즉시 이행하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사실 한국은 관세협상이 끝난 일본보다 GDP(한국의 약 2.5배), 외환보유고(한국의 약 3배)에서 훨씬 적고 기축통화국도 아니다. 그래서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며 미국의 압력에 더 고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규모의 선불 투자는 국내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돼 이 대통령은 바로 서명하지 않고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심히 우려하는 대목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인력 비자 문제다.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되면서 현지 투자 환경에 대한 회의론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전문 인력 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국 기업은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관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미국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win-win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순리다.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골든타임 찬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더욱이 미·중 정상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한국 외교가 실리와 균형의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MASGA’ 프로젝트가 한·미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될지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과 전략적 선택에 달려있다.

이번 경주 APEC 회의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미·중 갈등의 변방에 머무느냐를 가르는 전환점이다. 결국 ‘MASGA’ 제안의 성패는 관세 협상을 넘어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의 협력과 상호 신뢰 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결국 한국이 얼마나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우리 미래가 걸려 있다고 본다.

## 無等鼓

# 청년 백수

집에서 놀고 먹는 이를 가리키는 백수(白手)는 ‘백수건달(白手乾達)에서 나온 말이다. ‘백수’는 하얀 손이라는 의미로 아무런 능력이나 재주 실력이 없는 사람, ‘건달’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행패와 난봉을 부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한다. 건달이라는 말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적 존재인 ‘간다르바’에서 유래했다. 간다르바는 음악을 사랑하며 향기를 먹고 사는 자유로운 존재로 인도판 요정에 가깝다. 이 이름이 한국 등으로 넘어오면서 ‘일은 안 하고 빈둥댄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돼 사용되고 있다.

백수와 같은 말로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에는 한량, 놈팡이, 룸펜 등이 혼용됐다. 한데 원래 의미를 따지다 보면 이러한 용어들이 억울하게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본래 의미로는 마냥 놀고먹는 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로 능력은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이 잠시 일(노동)을 쉬는 휴직 상태의 노동자 즉 ‘휴직자’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로 치면 ‘잠시 쉼’ 상태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실직 후 쉬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이른바 ‘경계선 백수’에 가깝다. 보통 일을 하다 그만둔 실업자를 포함하며, 에둘러 취업준비생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프리랜서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자주 쓰는 ‘청년 백수’ 역시 이와 같은 부류다. 청년 백수는 15~29세 청년 중 실직을 했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집에서 쉬는 이들을 말한다. 통계에 따르면 이런 청년 백수들이 계속 늘어 지난 2월 기준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혹은 ‘취업준비자’인 청년의 수까지 합산하면 더 많을 것이다. 청년 4명 중 1명이 불안정 고용 상태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며칠 후면 일가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이다. 여러 세대가 모이는 자리라 청년 백수 한 둘은 끼기 마련인데 이런 상황에 ‘결혼은 안 하니’, ‘취업은 어떻게 됐니’, ‘애는 안 낳니’ 등 청년을 향한 금기어를 거침없이 말하는 어르신이 있을까 봐 걱정이다.

/김대성 전남 서·중부 전북 취재부장 bigkim@

## 기 고

# 푸른 다도해처럼 맑고 투명한 청렴

박 관 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오랜만에 가족과 이웃이 모여 정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 시기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다.

추석은 한 해 동안의 성실한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시기이자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되새기는 명절이다.

조상에게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전통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청렴의 덕목과 맞닿아 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사사로운 유혹을 물리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자세가 곧 청렴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수 많은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이다. 이 소중한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단순히 현재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온전한 자연을 전하는 사명과도 직결된다. 자연이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듯 공직자의 청렴 또한 잃으면 다시 세우기 힘들다.

그러하기에 공직자는 자연을 지키는 사명 못지않게 청렴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 청렴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하고 신뢰를 잃은 행정은 결국 미래를 지킬 힘을 잃게 된다.

또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가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 청렴은 그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작은 일상의 실천이 모여 사회 전체를 맑고 깨끗하게 만든다.

추석의 보름달이 어둠을 밝히듯 청렴은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비추는 등불이 된다. 작은 자리에서부터 청렴을 실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익을 우선하며, 공정과 투명을 잃지 않을 때 국민은 공직자를 믿는다. 국민의 신뢰야말로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추석의 의미는 단순히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작은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는 순간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이 된다.

청렴은 공직자만의 덕목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야할 약속이며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판단은 신뢰를 쌓는다. 신뢰가 두터워 질수록 공동체는 더욱 단단히 서고 그 힘이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낸다. 다도해의 맑은 바다처럼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책무이다.

청렴의 가치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올해 추석에도 모든 국민이 가족과 함께 풍성한 결실을 나누기를 기원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앞으로도 자연을 보전하는 사명과 함께 청렴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행정을 이어가고자 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앞장서겠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편집국안내 |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 편집부 |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제2사회부 |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 〈FA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